

309장 목마른 내 영혼

- 1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 2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 3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 4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에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 후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싸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 1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 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 2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 3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2월 20일(수) 기도 담당 : 곽철영 장로

2019년 2월 19일(화)

이른아침예배

인도 : 고흥석 목사

예배를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309장 다 같 이
 기 도 이기연 장로
 성 경 봉 독 출애굽기 3:6~12 인 도 자
 찬 양 새벽찬양대
 설 교 · 『내가 너와 함께 함이 너의 정체성이다』 · 이상학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같 이
 찬 송 384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출애굽기 묵상 본문 및 설교 제목>

요 일	본 문	제 목
2월 19일(화)	출 3:6-12	내가 너와 함께 함이 너의 정체성이다
2월 20일(수)	출 3:13-15	나는 스스로 있는 자요 스스로 있게 될 자니라
2월 21일(목)	출 3:16-20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리라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9년 2월 19일(화)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날을 선물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이른아침예배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며 기억하고 준행하여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스스로 있는 자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은 한없이 연약하고 작은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바로의 폭정 아래 신음하는 이스라엘처럼, 원수와 죄의 억압에서 자유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먼저 구원하여주시고, 홀로 완전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이 세상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경배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새문안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새문안의 모든 가정이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담임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며, 교회에 주신 표어대로 “말씀이 흥왕하여 참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교회”로 더욱 이끌어주옵소서. 협력하는 당회원들과 직분자들에게 성령과 지혜의 충만을 주시어 기도의 무릎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각 제직부서를 비롯한 각 구역과 교회학교 위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복음 안에서 한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모두의 마음을 쏟게 하옵소서. 새 성전 입당 과정도 은혜 가운데 순전히 진행되게 하옵소서.

어느 때보다 한반도의 평화를 갈망하는 지금,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지켜주시고 제2차 북미회담을 친히 이끌어주셔서 복음 안에서 통일의 길이 속히 열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새문안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교역자들, 해외 선교사들을 충만한 은혜로 감싸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고통 속에 있는 교우들에게 치유와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